

12/17/23

설교 제목: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염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골로새서 2 장 1-23 절

- (골 2: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절판주** 벤전 1:8
- (골 2: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 (골 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절판주** 롬 11:33
- (골 2:4)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 (골 2:5)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절판주** 고전 5:3

###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 (골 2: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 (골 2: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 (골 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 (골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 (골 2: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 (골 2: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 (골 2: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 (골 2: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 2: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 2: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 2:18)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사람

(골 2: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골 2: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골 2:22)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골 2: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느라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였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가보지 않아 성도들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 교회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염려했습니다.

(고후 11: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골로새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까이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언급하며 자신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옥중에 있어 육체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골 2: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읽게 하고, 또 자신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서신도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골 4:16)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오디게아는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던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골로새에서 북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골로새 교회와 근접해 있었습니다.

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 세 교회들은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에바브라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골 4: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 4: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런데 이들 교회에 이방 사상이 침투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하게 만들어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의 믿음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로 영적 투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힘써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원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골 2: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첫째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단 사상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안'은 슬픈 일을 당했거나 실의에 빠진 마음을 위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거짓 교훈에 잘 대적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분열되지 않고 이단 사상에 강력하게 대항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그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거짓 교훈을 분별하여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골 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 2:4)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들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이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연결되어서 타인보다 훨씬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없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한다고 격려하며,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골 2:5)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 2: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 2: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머물때 그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교훈대로 충실히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 영지주의 모체가 된 초기 영지주의 사상, 율법주의적인 유대 사상, 거짓 그리스도 사상 등 복음에 반하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 교인들을 교란시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추가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 영지주의 모체가 된 초기 영지주의 사상 등을 추종하는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을 철학과 공교한 말로 교란시켰습니다.

철학과 속임수를 가지고 교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골 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 2: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도 바울은 그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이 꾸며낸 거짓 교훈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헬라어 '스토이케이아'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나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천사숭배를 가리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거짓 영을 섬기는데서 비롯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거하시고'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지니고 오셨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은 그것을 소유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성취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 철학이나 모세의 율법 의식이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천사 숭배 같은 어떤 것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유대 사상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임을 주장하며 이방인 교인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받을 것과 유대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먼저 할례에 대해 말합니다.

(골 2: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 2: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외적 표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영적 할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세례를 통해 옛 본성 또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 죄의 종 노릇 하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할례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또 십자가로 인해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육적 할례는 예표에 불과하며 영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사람을 입으며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율법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죄의 결과를 규정함으로,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받아야 함을 선고하여 인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괴롭히는 율법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은 율법이 십자가에 못박힘을 의미하여 율법의 완전한 폐지를 가리킵니다.

(골 2: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 2: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규례나 율법적인 계명을 쓴 증서'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통치자와 권세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존재들 곧 악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이와같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율법이 완전히 폐기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율법의 제약이나 율법의 고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기나 월삭 안식일 등 유대인들이 지켰던 성일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림자들은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것들을 준수하지 않았다 해서 판단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골 2: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 2:18)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꾸며낸 겸손’은 위선적인 겸손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드리는 것은 교만한 것이므로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천사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비한 체험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육체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  
혹은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도 비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한 자들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도리어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아니었습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긴밀히 연합되어 하나님께  
양육하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결별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처럼 거짓 교사의 거짓 교훈 곧 이단 사상을 좇아 살아서는  
안됩니다.

(골 2: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골 2: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골 2:22)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골 2: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금욕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욕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나타나는 육체적인 탐닉을 제한 하는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 원조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 교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교주),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일명 안상홍 증인회 (안증회 장길자 교주), 구원파,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만민중앙교회(이재록)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 침투하여 교인들에게 이단 사상을 가르쳐 교인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단들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에 속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